

#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 IPP형 장기현장실습 경험 유무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

정병규(남서울대학교 IPP전담 교수)<sup>1)</sup>

###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 장기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집단과 그렇지 않은 학생 집단 간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한 모집단은 4학년 학생 중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s) 장기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과 IPP를 포함한 장기현장실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학생으로 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샘플은 각각 100명씩 200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취득하였다. 결과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실증적 연구 분석결과, 첫째,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중 교과만족은 인지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만족 역시 인지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일반만족은 정서적 스트레스에만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장기현장실습경험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는 반대로 낮게 나타났었다. 셋째, 실습을 한 학생 집단의 경우 교과만족이 정서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 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 집단의 경우 교과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관계만족의 경우 비실습 집단만 인지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일반만족의 경우 실습 집단만 정서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스트레스에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이론을 지지하였고, 두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연구 의의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인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대학생, 전공만족도, 장기현장실습, 취업스트레스

## I. 서론

대졸자의 구직난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2020년 4월의 취업자수가 2019년 4월 대비 47만명이 줄었다고 한다(조선일보, 2020. 05. 26). 이러한 현실에서 속에서 대학 진학시 취업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잣대로 부상했다. 하지만, 정작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높은 고용불안은 대

1) 저자: 남서울대학교 IPP전담 교수, gljoseph@nsu.ac.kr  
· 투고일: 2020-03-27 · 수정일: 2020-05-07 · 게재확정일: 2020-05-30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진로적성에 맞는 전공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취업을 못하다 보니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게 취업준비를 하지만 우리 사회의 취업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져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선행 연구들은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왔다(김경남, 강은영, 2020 ; 김영선, 이현주, 2019).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를 살펴보는 최근의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특정 대학 혹은 특정 학과의 학생들만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IPP형 장기현장 실습과 같이 전공을 현업에서 심화시키는 등의 학교 교과 활동 이외의 요소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나아가 전공만족도나 취업스트레스는 다양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분화해서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집단을 동일한 전공을 하는 학생중 장기현장실습 경험유무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획일적인 시사점 도출이 아닌 집단간 차이를 인정하는 결과를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 졸업반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나아가 IPP형 장기현장실습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취업스트레스 차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IPP형 장기실습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간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통해 학술적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힐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정부, 지자체, 대학교의 취업지원정책과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도 본인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IPP형 대학생 장기현장 실습

대학생들의 전공 심화와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실습관련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방학을 이용하여 4주내지 8주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을 해왔다. 2015년부터 IPP형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실습이 방학 위주에서 벗어나 학기중에도 학교 수업대신 실습을 하고 학점을 부여 받게 되었다. IPP란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의 약자로 일종의 독일의 도제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학교에서 수업하는 대신 기업에서 실습을 하고 이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다. 2020년 현재 전국 37개 대학에서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4,000명 내외의 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서 장기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기존 실습 프로그램과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실습이 방학기간 등 단기 실습위주였으나 IPP형 장기현장실습은 방학기간은 물론 방학기간과 연결된 학기까지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실습기간보다 장기간(4개월에서 6개월)이다. 둘째, 학기중에도 실습이 가능해서 실습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불하므로 금전적으로도 타인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한 학기를 마칠수 있다. 셋째, 단기 실습의 경우 기업이 실습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학생들도 자신이 실습하는 직무를 단기에 몸에 익히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여 실습 이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희박하였다. 그러나 4개월 또는 최장 6개월의 실습기간을 가지는 IPP형 장기현장 실습은 주어진 직무를 대부분 이해하여 본인 적성과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기업도 실습학생이 해당 기업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수록 실습 종료이후 취업연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기업과 학생들이 다른 실습 프로그램 보다 선호하고 있다.

## 2.2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이연숙(2019)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전공만족도를 개인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비교하여 개인적,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주관적이며 총체적인 판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Derry and Brandenburg(1978)는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을 학업 요인, 교수 요인, 일반요인의 세 개의 구성요인으로 분석했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계현, 하혜숙(2000)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과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교인식 만족, 학과인식 만족 요인, 전공학문관심, 전공교과만족, 교수-학생 관계만족 요인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rry and Brandenburg(1978)의 세부 분류에 따라 학업요인(교과만족), 교수요인(관계만족), 일반요인(일반만족) 3개 요인으로 전공만족을 분석하였다.

김지영, 한채정(2019)은 취업스트레스를 졸업 이후의 진로와 취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갈등을 말하는 것으로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취업스트레스를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azarus and Folkman(1984)이 세분화한 인지적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를 원용하였다.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전공만족과 취업스트레스간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
김영선, 이현주 (201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및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특정 대학교내 3개 단과대 학생 110명
김지영, 한 채정 (2019)	피부미용전공 대학생 및 졸업생의 전공만족도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피부미용전공 대학생 및 졸업생 402명
이연숙 (2019)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영향관계	4개 대학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 240명
한익진, 황보명 (2019)	관광계열과 보건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관광계열 338명, 보건계열 229명
김경남, 강은희 (2020)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4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19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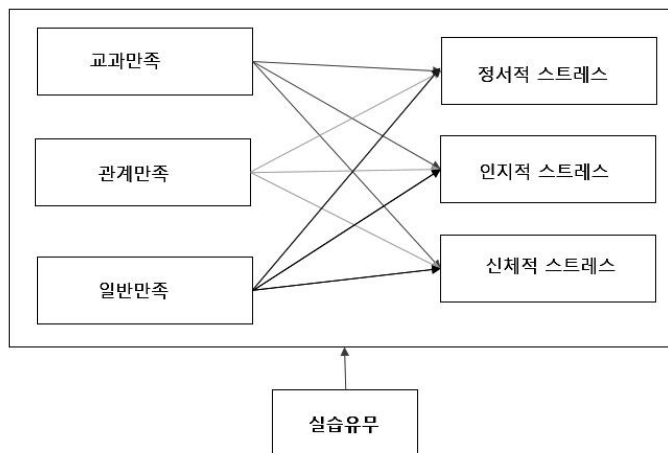
김영선, 이현주(2019)는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간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지영, 한 채정(2019)은 전공 비만족군은 전공 만족군에 비해 신체적 스트레스 총점, 심리적 스트레스 총점 및 인지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했다. 이연숙(2019) 역시 전공 만족도는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경남, 강은희 (2020)는 취업스트레스는 자아 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 만족도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했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익진, 황보명(2019)은 관광계열과 보건계열 대학생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간 취업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관광계열과 보건계열 대학생 모두 전공만족 요인 중 인식만족이 성격 스트레스에, 관계만족이 학교환경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두 전공계열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만족은 관광계열 대학생에게만 학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향상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전공계열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를 살펴본 최근의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특정 대학 혹은 특정 학과의 학생들만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IPP형 장기현장 실습과 같이 전공을 현업에서 심화시키는 등의 학교 교과 활동 이외의 요소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나아가 전공만족도나 취업스트레스는 다양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분화해서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III. 연구 설계

####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전공 만족도는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3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취업스트레스는 인지적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3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모형을 바탕으로 IPP형 장기 현장 실습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 3.2 가설설정

##### 3.2.1 전공만족과 취업스트레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 한 채정(2019)은 전공 비만족군은 전공 만족군에 비해 신체적 스트레스 총점, 심리적 스트레스 총점 및 인지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1. 전공만족중 교과만족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2. 전공만족중 교과만족은 인지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3. 전공만족중 교과만족은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1. 전공만족중 관계만족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2. 전공만족중 관계만족은 인지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3. 전공만족중 관계만족은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 가설3-1. 전공만족중 일반만족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2. 전공만족중 일반만족은 인지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 가설3-3. 전공만족중 일반만족은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3.2.2 실습유무에 따른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차이**

한익진, 황보명(2019)은 관광계열과 보건계열 대학생 두 집단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광계열과 보건계열 대학생 모두 전공만족 요인 중 인식만족이 성격 스트레스에, 관계만족이 학교환경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두 전공계열 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만족은 관광계열 대학생에게만 학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IPP형 장기현장 실습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4. IPP형 장기현장실습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간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5. IPP형 장기현장실습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간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6. IPP형 장기현장실습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조사 설계**

실증적인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대학생중 4개월이상 IPP형 장기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각각 100명씩 할당 표본 추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20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 관련하여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요인 3가지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인 취업스트레스 관련하여 정서적, 인지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 요인 3가지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 값으로 측정한 결과 .764에서 .929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측정 항목간 내적 일치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리커트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4.0를 활용하였다.

<표 2> 측정 항목 및 출처

구분	측정 항목	출처	
교과만족	교과1	우리 학과의 교과 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Derry and Brandenburg,1978 : 김계현, 하혜숙, 2000
	교과2	우리 학과의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교과3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나의 적성과 잘 맞는다.	
	교과4	학과의 내용이 미래의 직업에 대한 준비를 잘해준다.	
	교과5	전공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관계만족	관계1	교수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관계2	학과 영역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관계3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를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관계4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전공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일반만족	일반1	나는 학과에 대해서 만족한다.	Lazarus and Folkman, 1984 ; 김지영, 한 채정. 2019
	일반2	나는 우리 학과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일반3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학과가 도움이 된다.	
	일반4	내 전공분야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일반5	나의 전공분야와 졸업 후 전공분야가 잘 맞는다.	
정서적 스트레스	정서1	나는 면접에서 실수할까봐 매우 불안하다.	
	정서2	나는 취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까봐 매우 불안하다.	
	정서3	나는 취업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매우 초조해 진다.	
	정서4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능력이 부족해 매우 속상하다.	
인지적 스트레스	인지1	나는 원했던 대학을 다니지 않고 있어 취업이 잘 안될것이다	
	인지2	내가 다니는 학교는 취업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인지3	우리 학교의 학맥이 약해 노력을 해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인지4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 원하는 직장이 아닐것이다	
신체적 스트레스	신체1	나는 취업에 대해 생각하면 식욕이 떨어진다.	
	신체2	나는 취업준비로 인해 가슴의 통증을 느낀다.	
	신체3	나는 취업문제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자꾸 깬다.	
	신체4	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숨쉬기가 힘들어 진다.	

## IV. 연구 결과

### 4.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본은 4개월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한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 각각 100명을 선정하였다. 성별로도 남자가 53.5%, 여자가 46.5%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들이 주요 취업 타겟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기업이 18%로 나타났다. 취업에 대한 준비 노력은 조금하고 있다가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3> 응답자 특성

		빈도	%	누적 %
성별	남성	107	53.5	53.5
	여성	93	46.5	100.0
	전체	200	100.0	
장기현장실습유무	있음	100	50.0	50.0
	없음	100	50.0	100.0
	전체	200	100.0	
취업준비대상	공무원	12	6.0	6.0
	창업	5	2.5	8.5
	대기업	36	18.0	26.5
	중소기업	102	51.0	77.5

	기타	45	22.5	100.0
	전체	200	100.0	
취업준비노력도	열심 노력	23	11.5	11.5
	조금 준비	159	79.5	91.0
	준비 없음	18	9.0	100.0
	전체	200	100.0	

## 4.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가설을 검정하기에 앞서 요인들의 측정 항목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판단은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경우 유의 확률 .00에서 KMO값이 .842로 꽤 좋은 편에 속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3995.434(p=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 분산은 78.264%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과 동일하게 독립변수 3개 요인, 종속변수 3개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2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교과, 관계, 일반 만족 3개요인, 종속변수인 정서, 인지, 신체 스트레스 3개요인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교과만족 .861, 관계만족 .764, 일반만족 .905, 정서적스트레스 .920, 인지적 스트레스 .865, 신체적 스트레스 .929로 모두 임계치인 .7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요인적재치	회전제곱적재량 (누적%)	Cronbach $\alpha$
교과만족	교과5	.815	14.941	.861
	교과2	.765		
	교과4	.743		
관계만족	관계1	.774	29.843	.764
	관계2	.746		
	관계4	.741		
일반만족	일반5	.871	43.310	.905
	일반3	.857		
	일반4	.799		
	일반1	.702		
	일반2	.655		
정서적 스트레스	정서S2	.888	55.828	.920
	정서S1	.831		
	정서S3	.825		
	정서S4	.817		
인지적 스트레스	인지1	.774	68.254	.865
	인지2	.746		
	인지4	.741		
	인지3	.677		

신체적 스트레스	신체S4	.867	78.264	.929
	신체S3	.827		
	신체S2	.821		
	신체S1	.683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4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995.434
	자유도	276
	유의확률	.000

### 4.3 판별 타당성 검정을 위한 상관 관계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 타당성이 확인된 요인들 간의 판별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각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0.8미만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충족되었다(우종필, 2017 ; 조철호, 2017).

<표 5> 판별 타당성 검정 결과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정서적스트레스	인지적스트레스	신체적스트레스
교과만족	1					
관계만족	.737**	1				
일반만족	.646**	.689**	1			
정서적스트레스	-.395**	-.409**	-.429**	1		
인지적스트레스	-.443**	-.459**	-.400**	.538**	1	
신체적스트레스	-.455**	-.456**	-.412**	.563**	.724**	1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 4.4 장기현장실습 경험 유무 집단간 차이 검정

장기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 t-test를 한 결과는 <표6>과 같다.

전공만족의 경우 장기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3.295이며, 없는 집단은 2.986이었다.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309였다.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전공만족도가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에 대해 T-test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4. IPP형 장기현장실습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간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한편, 취업스트레스의 경우 장기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2.388이었으며,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3.405였다. 두 집단간 차이는 1.017이었다. 즉, 장기현장 실습을 하지 않는 집단의 취업스트레스가 장기현장 실습을 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에 대해 T-test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5. IPP형 장기현장실습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간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표 6> 집단간 t-test 결과

	장기현장 실습경험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공만족	있음	3.295	.682	3.273	198	.001	.309	.094	.123	.496
	없음	2.986	.655							
취업스트레스	있음	2.388	.555	-11.396	198	.000	-1.017	.089	-1.193	-.841
	없음	3.405	.699							

### 4.5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간 인과관계 검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교과만족은 인지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만족 역시 인지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일반만족은 정서적 스트레스에만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1-2. 전공만족중 교과만족은 인지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전공만족중 교과만족은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전공만족중 관계만족은 인지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전공만족중 관계만족은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전공만족중 일반만족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전공만족중 일반만족은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채택되었다. 한편, 가설1-1. 전공만족중 교과만족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전공만족중 관계만족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전공만족중 일반만족은 인지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전공만족중 일반만족은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기각되었다.

<표 7>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간 인과관계 검정 결과

가설	path	전체		실습경험집단		실습비경험집단	
		β	t	β	t	β	t
H1-1	교과 → 정서스트레스	-.129	-1.324	-.296	-2.012**	.050	.371
H1-2	교과 → 인지스트레스	-.198	-2.065**	-.117	-.718	-.202	-1.704
H1-3	교과 → 신체스트레스	-.221	-2.313**	-.340	-2.153**	-.142	-1.179
H2-1	관계 → 정서스트레스	-.144	-1.403	-.136	-.895	-.222	-1.516
H2-2	관계 → 인지스트레스	-.238	-2.355**	-.250	-1.485	-.448	-3.480**
H2-3	관계 → 신체스트레스	-.204	-2.027**	-.078	-.478	-.479	-3.671***
H3-1	일반 → 정서스트레스	-.247	-2.711**	-.189	-2.531**	-.076	-.563
H3-2	일반 → 인지스트레스	-.108	-1.203	-.077	-.563	.115	.971
H3-3	일반 → 신체스트레스	-.128	-1.437	-.079	-.597	.124	1.025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상관관계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한편, 실습을 한 학생 집단의 경우 교과만족이 정서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 실습

을 하지 않는 학생 집단의 교과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관계만족의 경우 비실습 집단의 경우만 인지적 스트레스와 신체적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일반만족의 경우 실습집단만 정서적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전공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가설6. IPP형 장기현장실습을 한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 V. 결 론

###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 IPP형 장기현장 실습 경험 유무 학생집단간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검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모집단은 4년제 대학생중 장기현장실습 경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샘플은 각각 100명씩 200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취득하였다. 결과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가설검정을 위한 다중 회귀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 분석결과, 첫째,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중 교과만족은 인지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만족 역시 인지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일반만족은 정서적 스트레스에만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장기현장실습경험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는 반대로 낮게 나타났었다.

셋째, 실습을 한 학생 집단의 경우 교과만족이 정서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 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 집단의 경우 교과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관계만족의 경우 비실습집단의 경우만 인지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일반만족의 경우 실습 집단만 정서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5.2 논의 및 시사점

먼저 가설 검정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전공만족과 취업스트레스를 세분화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분화 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과만족과 관계만족이 인지적 스트레스 및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과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오는 스트레스인 인지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연구 결과라고 할수 있다.

둘째, 현장에서 실무를 장기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현장 실습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 내지 자기 효능감을 높여 취업에 대한 불안감등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전공에 대한 공부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습 집단과 비실습 집단간 전공만족도 요소중 취업스트레스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왔다. 대

체로 실습 집단은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실습집단은 관계만족만이 인지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비실습집단의 경우 학교에 남아서 교수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관계가 만족스러울 경우만 취업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있다. 실습을 나가게 되면 학교의 교수와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므로 실습 집단의 경우 관계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술적인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포괄적인 차원에서 전공만족과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 반면 본 연구는 이들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실습이라는 집단 변수를 도입하여 집단간 영향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학술적으로 한걸음 진보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무적으로는 학과 교육과 실습 기회를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장기 현장 실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5.3 연구한계 및 향후 방향

이러한 학술적 및 실무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설문대상자가 충남소재 N대학교와 H대학교 학생들로 제한적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이라는 독립 변수만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특성들도 확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

- Derry, S., and D. C. Brandenburg(1978), "Students' ratings of academic programs : A study of structural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5), 772-778.
- Lazarus and Folkman(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New York.
- 김계현,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 학부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상담학회지*, 1(1), 7-20.
- 김경남, 강은희 (2020),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3), 80-88.
- 김영선, 이현주(201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및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6), 411-420.
- 김지영, 한채정(2019), "피부미용전공 대학생 및 졸업생의 전공만족도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5(1), 35-41.
- 우종필(2017), *구조방정식모형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서울
- 이연숙(2019),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영향관계," *관광연구*, 34(4), 167-184.
- 조철호(2017), *SPSS/AMOS 활용 구조방정식모형 논문 통계분석*, 도서출판청람, 서울
- 조선일보, 2020. 05. 26.
- 한의진, 황보명(2019),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관광계열과 보건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 *관광연구*, 34(5), 203-222.

# **Influences of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 Focusing on Differences of IPP Experienced, Nonexperienced Groups -**

Chung, Byoung-gyu<sup>1)</sup>

##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 analysed how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ffected job-seeking stress. It also analysed the mean differences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between two groups(IPP experienced, non-experienced groups). 200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field survey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o a quot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who had IPP experience or non-experience. For hypothesis testing, the IBM SPSS Statistics 24.0 was used.

As a result of empirical research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major satisfa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job-seeking stress. Among major satisfaction sub categories, subject satisfaction had negative effects on cognitive and physical str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lso had negative effects on cognitive and physical stress. On the other hand, general satisfa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ly on emotional stres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of IPP experience group was high, and the job-seeking stress was low. Third, in the group of students who practiced IPP, subject satisfa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emotional and physical stress, whereas subject satisfaction in the group of students who did not practice IPP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job-seekingt stress. In the cas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only non-practice groups had a negative effect on cognitive stress and physical stress. In the case of general satisfaction, only the IPP group showed negative effects on emotional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e preceding studies that major satisfaction had an effect on job-seeking stress, and the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IPP experienced, non-experienced groups. Based on this result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Keywords:**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IPP, Job-seeking Stress*

---

1) Author, Professor of NamSeoul University, gljoseph@nsu.ac.kr

## 저 자 소 개

- 정 병 규(Chung, Byoung-gyu)
  - 남서울대학교 교수, 정보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 NIPA, IITP 4차산업관련 평가위원
- <관심분야> : ICT전략 및 마케팅, AR/VR 및 3D 프린팅 비즈니스, 고객여정, 4차산업기술수용, 6차산업체험